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찬양채플
9:00AM(비전채플), 11:00AM(찬양채플)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크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복의 근원 강림하사(찬28/새28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도석 장로 2부/구윤모 장로 3부/강덕규 집사 4부/김지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 교회여 일어나라(Pepper Choplin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Kaylee Kim **김태유**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호세아(Hos.) 2:2-13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1:25-36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 AFC(2) 가시로 담을 쌓는 사랑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41): 땅에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기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찬318/새528장), 광야를 지나며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크리스천의 행복

Christian's Happines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유명한 윌 스미스가 주연한 '행복을 찾아서(The Pursuit of Happiness)' 영화가 있습니다. 세일즈맨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실적이 좋지 않고, 생활고에 급기야 아내가 그와 아들을 떠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결국 다섯 살 어린 아들과 아파트에서 쫓겨나 홈리스 센터나 지하철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는 신세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만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고, 월 스트리트의 전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스스로의 의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남의 가진 행복추구의 권리를 유린 왜곡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자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행복을 짓밟는 것은 범죄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의 행복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기만의 가치 추구에 매몰되어 있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같이'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내 이웃에 전하는 일부터 저 먼 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내어 봉사하는 일까지 우리는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만 불 현찰 돈다발 하나를 주었다고 하십시오. 그 순간 이 만 불로 무엇을 할까 상상하며 행복할 수 있지만, 그 만 불을 잃어 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 조리며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행복이 남의 불행을 밟고 얻는 것이라면 진정한 행복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만 불이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땀을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땀 흘리는 노력이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분명 품격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아랑곳 하지 않고, 누리는 이기적 저품격 행복에서부터,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고생도 행복한 희생으로 여기는 고품격 행복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요,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길 가다가 돈 다발 주울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땀 흘려 '같이' 행복할 일을 위해 수고할 일을 찾아 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There is a movie called [The Pursuit of Happiness] starring famous actor Will Smith. The main character is a salesman who doesn't perform well in his job. In financial difficulty, his wife leaves him and their son. He is unable to pay rent, and he is evicted from his apartment with his five-year-old son. His life has been reduced to taking naps in homeless shelters or subway restrooms. In midst of despair, he does not give up for the sake of his son. He overcomes all odds with iron will, making this a legendary story of Wall Street.

We all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Right to pursue happiness.' Anyone, for their dignity and value, h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their own will. What's important here is that this right is given to "anyone." We cannot distort or overlook another person's right to pursue our own happiness. Trampling on other's happiness to keep our happiness is a crime. This is why I believe Christian's happiness is important. In this selfish world obsessed with one's own values, being able to pursue a happy world 'with' others is Christian's greatest mission. From sharing the gospel with neighbors to sending missionaries to serve in faraway countries, we want to be happy 'with' others. For example, while walking, you found a bundle of ten thousand dollars in cash. You could be happy for a moment while thinking about what you could do with the money. What about the person who lost that ten thousand dollars, heartbroken and in despair? If our happiness is gained through trampling on other's misfortunes, that cannot be a true happiness. However, if we could give our honest hard-earned money to a neighbor in need, though we may have suffered in sweat, we can be happy.

Our happiness certainly has level of quality. Some could not care for other's misfortune, leading to selfish low-quality happiness. Others enjoy bringing happiness to others, enjoying higher quality happiness, even their own hardship as a sacrifice for happiness. I believe we, the Christians, absolutely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God promised and guaranteed it. However, don't think about picking up a bundle of cash on your walk. Rather, seek after things that will bring happiness 'with' others as we work in sweat with God given health.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 8:28)

주일 설교 시리즈: 호세아 강해

L AFC-2

LOVE ALWAYS FINDS CHRIST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가시로 담을 쌓는 사랑

(호 2:2-13)

1. 하나님은 고멜에게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럼에도 고멜이 그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2, 8-9절)

2. 고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며 바알을 따랐습니다. 언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나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 오해하거나 붙잡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6-10절)

3.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시와 담을 두셨습니다. 최근 내 삶에서 경험한 '가시와 담'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5-7절)

4.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위로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제지가 나를 살리는 은혜임을 어떻게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5. 바알의 문화는 풍요, 쾌락,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나를 유혹하는 '현대의 바알 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6.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와 결단을 하게 하십니까?

적용하기

말씀
변화
영매

■ 적용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찬318/새528장), 광야를 지나며

협력 선교
실크웨이브 이사회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지난 8월 23일(토)부터 27일(수)까지 실크웨이브 선교회 이사회가 베델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실크웨이브 선교회는 튀르키예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 기도운동과 교회 개척운동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튀르키예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때 실크웨이브 선교회는 발 빠르게 난민 캠프로 달려가 'B&B 캠페인(Bible & Bread)'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구호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난민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 개척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도 실크웨이브 선교회는 가장 먼저 지진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텐트를 설치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나누었으며, 컨테이너 숙소 100동을 지원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역은 2027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B2N(Blessing to Nation) 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곳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에 7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여, 튀르키예와 이슬람권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주 지역에는 33개의 교회가 실크웨이브 선교회의 이사회교회로 함께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매년 한 차례 열리며 각 이사회교회가 돌아가며 장소를 제공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이사회는 베델교회가 호스팅하였는데, 5일 동안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8번의 식사 준비, 회의 중간 커피와 간식 제공, 공항과 호텔 픽업까지 만만치 않은 섬김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참석하신 이사님들 모두 큰 만족을 느끼며 이사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9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애쓰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안쓰럽게 보였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봉사자들에게 기쁨으로 보상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이번 실크웨이브 이사회를 통해 섬김 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베델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허용진 장로



예살
4부 예배팀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 드려요



베델교회 4부 예배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모이는 예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주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더욱 은혜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예살 예배팀입니다.

예배팀은 예배의 첫 얼굴로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청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따뜻하고 밝은 미소는 예배의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과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예배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살 예배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팀은 매주 청년들이 자신의 셀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합니다. 6개월마다 새로운 셀원들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배 전후의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에게 더 집중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예배가 끝난 후 셀 모임을 위해 준비된 질문지를 미리 나눠 주어 예배의 은혜가 셀 모임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봉헌을 준비하고,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신속하게 돕습니다. 이 모든 섬김은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입니다. 예살 예배팀은 눈에 띄는 화려한 역할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의 흐름을 지켜 가는 귀한 팀입니다.

현재 예살 예배팀은 1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예배의 기쁨과 소중함을 온전히 누려야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경건한 삶을 유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팀은 예배를 섬기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신간 도서 소개

하나님의 시선으로 ReFocus



베델의 가족분들은 주님께서 작년에 담임목사님의 사시기 강해설교를 통해 우리교회에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조용히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목사님의 사시기 강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Refocus'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것입니다.

사사들은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하는 '믿음의 영웅'들 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이 흠이 많고 연약한 사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를 매일 경험하는 성도가 은혜를 망각했을 때 얼마나 더 추하고 위협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경고의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결국, 사시기대의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실패한 우리에게 끊임 없이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복음의 말씀을 매주 들었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재해석(ReFocus) 해야만 성도답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해석,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적용 질문, 눈에 쏙쏙 들어오는 디자인과 편집으로 구성된 담임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2024년에 받은 은혜와 결단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천사에서

"모든 것은 시각의 문제입니다. 시선과 관점, 곧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색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김한오 목사님의 사시기 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움에 눈뜨게 합니다. 그의 책은 우리를 새롭게 빛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황형택 목사(새은혜교회 담임목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마음과 눈은 관성의 법칙을 따라 세상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ReFocus) 삶을 살고 싶다면, 본 사시기 강해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조정(alignment)하는데 본서가 해답임을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황성철 목사(충신대 실천신학 은퇴 교수)

사역 간증

베델수요저녁예배

마음을 불타게 하시는 분



한 주의 중심,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수요예배 자리에서 저는 현재 FD (Floor Director)로 섬기고 있습니다. 수요예배에는 한 팀으로서 찬양, 안내, 영상, 조명, 영상, FD 등 여러 역할을 분담한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FD의 역할은 예배 순서가 원활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마이크와 스탠드를 준비하고, 포디엄을 세팅하며, 찬양단원의 입장을 안내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순서를 이

어드리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예배 중 강단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역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습니다. 처음 이 사역을 맡게 된 것은 제 의지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열떨결에 목사님의 부탁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자'라는 결단이 생겨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한가운데 있는 날이기에, 업무와 일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무거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요예배에 나오면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로 남은 주중을 든든히 견디며, 주일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봉사자로서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책임감 덕분에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속에 깊이 몰입하다 보니 제 역할을 잠시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불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예배가 시작되면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모든 피곤을 덮어주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 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박정원 집사

교회학교
AWANA

특별한 공동체

어와나(AWANA)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돕는 성경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0년 넘게 수많은 교회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2세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성경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중심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며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게임, 찬양, 소그룹 활동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어와나는 단순히 아이들을 맡겨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부모님

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겁게 배우며, 친구들과 함께 자라가고,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귀한 과정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와나는 아이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섬김을 통해 큰 힘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뛰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면, 지쳐 있던 제 몸과 마음이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게임을 하고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특히 어와나는 공동체의 장이 되어 줍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혹은 아직 교회 안에서 가까운 공동체를 찾지 못했

을 때, 어와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문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와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며 자라가는 것,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섬기며 믿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기쁨이 피어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와나는 제게 단순한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품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위우정

교회학교
영어 중등부

빛의 자녀들, 찬양으로 서다

어느덧 새 학기를 맞아 중등부에는 새로운 찬양팀이 구성되었습니다. 'Jesus'와 'Christ'라는 이름의 두 팀은 보컬뿐 아니라 건반, 기타, 바이올린, 드럼 등 다양한 악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7-8학년 학생들이 매주 교대로 3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중등부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내기 어려운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금요일 오후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주말로 접어드는 이 시간은 특별활동, 과외, 시험, 생일파티, 가족 여행 등으로 가장 바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저희는 찬양 연습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헌신은 무려 1년 동안 지속되며, 총 14명의 학생들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겠다는 서약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주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 찬양팀 리더는 기도 가운데 세 곡을 선곡하고 악보를 만들어 수요일

에 배포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맡은 파트를 성실히 연습한 후 금요일에 함께 모여 합주합니다. 연습 전에는 둥그렇게 둘러앉아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말씀대로 살아낸 시간과 갈등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찬양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도 예배자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 팀 'Christ'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또래 친구들 앞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 중간에는 악기 박자가 엇갈려 채플 뒤편에서 선생님이 손뼉으로 박자를 맞춰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어설플지만 진심 어린 모습 속

에서 고군분투가 전해졌고, 저와 선생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향기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빛의 자녀들'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며 함께 세워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찬양을 통해 은혜의 강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지원 전도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전도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혜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Beyond the Blue(B+B) 사역

Beyond the Blue(B+B) 가정 회복 영상 세미나란,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픔에 젖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사별)과, 뜻하지 않은 이혼(별거 포함)으로 인한 상실감과 아픔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과 함께 모여 13주 과정 동안 찬양과 영상, 기도과 말씀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는 모임입니다. 또한 소그룹 대화를 통해 깊이 공감하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사역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12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Beyond the Blue에 참여하신 분들의 고백이 되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 ▶ 일시: 9월 12일(금)~ 12월 19일(금), 매주 금요일
- ▶ 시간: 오후 6시~오후 9시, 저녁 식사 제공
- ▶ 장소: 베델교회 조이채플(교회 사무실 옆)
- ▶ 등록비: \$40
- ▶ 등록 방법: 베델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일 예배 후 본당 앞 부스
- ▶ 문의: 전정례 권사(714)240-3718, 이관혜 전도사 (949)422-8828

예배 봉사자

주일에배 대표기도(9월)	9/14: ①부-권조원	②부-김건성	③부-김도형	④부-김진형
	9/21: ①부-김광영	②부-김근수	③부-김병수	④부-나승채
	9/28: ①부-김문경	②부-김백열	③부-김동건	④부-신영록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9,10월) | 9/13: 김석열 9/20: 김동균 9/27: 김양래 10/4: 김원웅

강단꽃(8,9월) | 9/7: 정윤지 9/14: 김인권, 성홍숙 9/21: 김경희, 선상균, 이유경 9/28: 윤태경, 정윤경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최진선(내분비 내과), 간호사-심예본 다음주 | 의사-최인섭(치과), 간호사-박규희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동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김한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수요일예배** 9월 첫 주부터 3주간, 수요일 저녁 예배는 김한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주제로 하여 공관복음의 본문으로 진행되는 이 말씀의 잔치, 두 번째 시간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9월 10일(수) 저녁 7시 30분

말씀: 김한요 담임 목사, 기적과 죄사함(마태복음 9:1-8)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베델 제자훈련생 모집** 오늘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훈련생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각 반을 인도하실 담당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일시/장소: 9월 7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 **후임 목사 청빙에 대한 설문조사** 2026년 12월 31일에 은퇴하시는 김한요 담임 목사의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후임 목사 청빙에 대한 성도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문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쿼일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기간: 9월 7일(주일)-9월 21일(주일)



<한글>

<영문>

◆ **Beyond the Blue(B+B) 가정 회복 영상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세미나입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9월 12일(금)-12월 19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등록: 코트야드 부스나 홈페이지

문의: 전정례 권사 (714)240-3718, 이란혜 전도사 (949)422-8828

◆ **BYM 중등부 금요 프로그램** 9월 19일(금)부터 'Armor of God' 주제로 금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찬양과 말씀, 소그룹을 통해 모든 중등부가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을 학기: 9월 19일(금)-12월 12일(금) 저녁 7시-9시

등록 기간/등록비: 8월 24일(주일)-9월 7일(주일), \$60

문의: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 **초등부 창조과학 현장학습 등록 및 안내** 초등부가 샌디에고에 위치한 Creation & Earth Museum 현장학습합니다.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성경적인 창조 역사에 대해 배울 예정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상: 4-5학년

날짜: 9월 20일(토) 헵시바 이후

등록/문의: 최호경 집사 (714)398-3914

◆ **C2C(Call to Christ) 힙합 댄스팀 모집** C2C는 다음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청소년 댄스·힙합 사역입니다. 댄스, 팀 빌딩, 그리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향한 공연을 통해 청소년 리더들이 주님을 위해 재능을 기쁨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강사: Daniel An

대상/등록비: 6-12학년, \$350

시간/장소: 매주 주일 오후 2시-6시(9월 중순-12월 중순), 비전 채플



◆ **베델한국학교 2025년 가을학기 개강** 베델한국학교가 2025년 가을학기를 맞아,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14주간의 소중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복음을 배우는 이 길에, 함께 기도도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9월 6일(토)-12월 13일(토), 매주 토요일(14주간)

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 **담임목사 신간 도서 판매** 김한요 담임목사의 사시기 강해 '하나님의 시선으로-Refocus'가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코트야드에서 구입(\$20)하실 수 있으며, 1-3부 예배 후 저자 사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행정 사무실 (949)854-4010

◆기도해 주세요

- 목회자 사모를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한 '2025 사모 블레싱 나이트'가 OC 교협 공동 주관으로 9월 7일(주일) 오후 5시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 미주 큐티인 포럼과 미주 큐티엄 이사회가 9월 8일(월)부터 9월 9일(화)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 우간다 단기선교가 9월 11일(목)-9월 20일(토)까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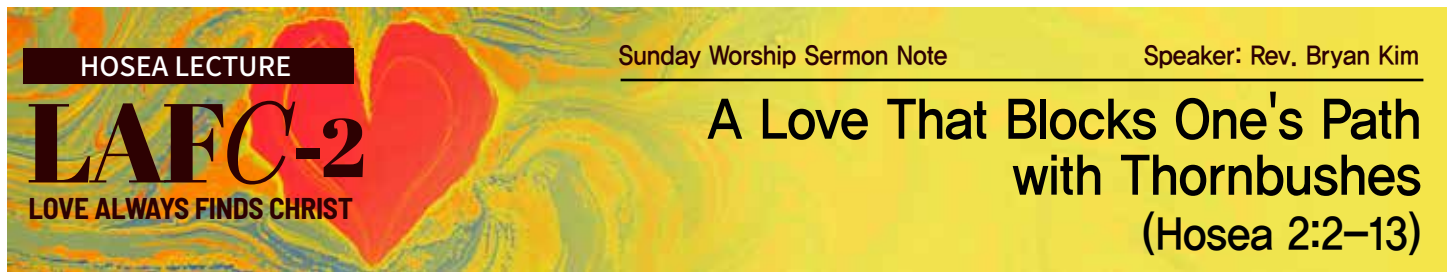
◆축하해 주세요

오늘 3부 예배에 김종현/김소영 집사의 딸 김태유(Kaylee)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1. God commands Gomer to stop living a life of adultery and sexual immorality. Yet Gomer persists in that life. Why does she refuse to change? (v. 2, 8-9)

2. Gomer mistakenly believed that what God had given her was hers alone, and she followed Baal instead. When does she realize her error? In your life today, is there anything you're holding onto or claiming as your own that is actually a gift from God?(v. 6-10)

3. God blocks one's path with thornbushes to keep the one He loves from going astray. What recent 'thornbushes and walls' have you experienced in your life, and how can you recognize them as signs of God's love? (v. 5-7)

4. In Psalm 23, David says that the Lord's rod and staff provide comfort. Have you ever experienced God's discipline and restraints as saving grace in your life?

5. The culture of Baal was focused on wealth, pleasure, and climbing the social ladder. What does the 'modern-day Baal culture' look like in your life today, and in what ways are you tempted by it?

6. How does the grace of the Cross move you to live differently today? What specific attitudes or decisions are you being called to make?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